

# 일부 남자 고등학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정 경 임  
(국군간호사관학교 · 보건의호학교실)

## 목 차

- I. 서 론
- II. 조사대상 및 방법
- III. 조사결과 및 고찰
  - 1) 일반적 특성
  - 2) 흡연자 상태
  - 3) 흡연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IV. 결론 및 제언
  - ※ 참고문헌
  - ※ 영문초록

## I. 서 론

우리나라에 처음 담배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 것은 광해군 10년(1618년)이었으며,<sup>1)</sup> 그 담배의 유독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유래가 세계적으로 길 뿐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기호물로써 인간의 필수품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39년 초부터 1950년대에 이르러서 미국 Scientific report가 흡연과 폐암을 관련지어 연구할 시작했으며<sup>2)</sup> 1951년에는 영국에서 거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1964년 British Medical Journal에 그 결과론 보고한 적도 있었다.<sup>3)</sup> 그 보고서에 의하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폐암으로 사망하는율이 약 13배가 되고, 하루 20개피

이상 피우는 Heavy Smoker는 약 30배가량의 사망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1964년 미국 Framingham의 보고에 따르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관상심장질환(Cornary Heart disease)으로 사망하는 율이 3배 이상이 된다고 하기도 했다. 이와같이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련의 연구 및 보고가 거듭되는 반면 세계적인 추세로 청소년의 흡연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sup>4)</sup>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흡연율은 임<sup>5)</sup>의 연구에서 67.4%, 조<sup>6)</sup>는 66.3%, 민<sup>7)</sup>은 18세이하의 흡연율이 32.2%라고 발표한 바 있어 현재 청소년의 흡연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흡연문제는 담배의 특성 가운데 인간을 흥분시키고 대담성 및 경박성을 지니게 함으로써, 신체발육과 정신적으로 건전해야 할 성장기에 있어서 큰 장애의 요인이 될을 고려할 때 성인보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청소년의 건강이 국가전체의 건강과 직결되고 흡연에 대한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sup>8)</sup>까지를 생각할 때 그들이 '흡연을 하게 된 동기 및 흡연실태를 조사하므로써 보다나은 청소년 선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이에 따라 본 조사자는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조사가 여러 측면에서 행하여져 왔으나<sup>9-13)</sup> 지역 및 대상자의 차이점

1) 최신혜, "금연의학", 대한의학협회지, 제10권, (1967), pp. 577~580.  
 2) Miller and Burtz, Good Health (W.B. Saunders Co. 1972), pp. 344~361.  
 3) Oakley S. Ray, Ph.D., Drugs Society, and Human behavior (St. Louis, C.V. Mosby Co. 1972), pp. 95~106.  
 4) 박형규,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사회정책적 고려", 대한의학협회지, 제10권, (1967), pp. 546~548.  
 5) 임태빈, "고등학생의 흡연 실태 조사 및 그 선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76).  
 6) 조상문, "한국 고등학생들의 흡연에 관한 조사 연구", 공중보건잡지, 제10권, (1973. 1), pp. 73~79.  
 7) 민병근, 이길홍, "한국 청소년의 흡연 양상",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1976).  
 8) 박형규, op. cit.  
 9) 임태빈, op. cit.  
 10) 조상문, op. cit.  
 11) 민병근, 이길홍, op. cit.  
 12) 민병근 외, "한국 청소년의 흡연 발생빈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1976).  
 13) 김경희, 최삼섭, "일부 남자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에 관한 조사", 대한보건협회지, 제 5권, (1976. 6), pp. 41~52.

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현재 대구시내의 3개 남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356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흡연 실태와 의식구조를 조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에 있어서 우수반의 정의는 설문조사 당시 각 학교내의 일정한 시험성적의 결과, 상위의 성적을 지닌 학생의 집단을 말하며 흡연자는 과거의 흡연경험에 이어 조사당일 현재까지 하루에 한개피이상을 습관적으로 흡연하고 있던 학생으로 규정하였다.

## II. 조사대상 및 방법

### 1) 조사 대상

본 조사는 대구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남자 고등학교 중에서 임의로 선정한 3개 학교에서 현재 3학년에 재학중인 우수반 학생 176명과 보통반 학생 180명, 총 3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학교별 조사대상자수

구분	K고교	G고교	S고교	계
우수반	59	58	59	176
보통반	61	62	57	180
계	120	120	116	356

### 2) 조사방법 및 기간

1979년 3월 19일 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미리 준비된 질문지에 의거하여 학과시간을 동태 무기명으로 작성토록 하되 사전에 조사자의 충분한 설명후 응답하도록 주의하였으며 자료분석에 있어서의 통계처리는 SPSS 및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 III. 조사결과 및 고찰

### 1) 일반적 특성

#### (1) 종교별

흡연자 중 종교가 없는 사람이 5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기독교로 17.5%, 불교 16.5%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형제 순위별

장남이 31.9%이고 다음이 차남으로 29.7%를 나타

〈표 2〉 종교별 흡연자수

종교	No.	%
무교	53	59.3
기독교	16	17.5
불교	15	16.5
천주교	7	7.7
기타	—	—
계	91	100.0

〈표 3〉 형제순위별 흡연자수

형제 순위	No.	%
장남	29	31.9
차남	27	29.7
내외	24	26.4
특자	11	12.0
기타	—	—
계	91	100.0

내었다.

### 2) 흡연자 상태

#### (1) 흡연실태

응답자의 25.6%가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운 경험을 갖고 있는 흡연자이고 나머지 74.4%가 무경험자로 나타났다. 김<sup>14)</sup>의 연구 대학생 흡연을 66.1%, 조<sup>15)</sup>의 연구 26.5%와 차이를 보이나 이는 대상 및 조사시기의 차이로 생각된다. (표 4 참조)

〈표 4〉 조사대상자의 흡연경험실태

대상자	No.	%
흡연경험자	91	25.6
무경험자	265	74.4
계	356	100.0

#### (2) 흡연시작시기 및 최초 동반자

흡연을 시작하는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 35.2%, 중학교 3학년 20.9%, 고등학교 1학년 19.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민학교 및 중학교 1학년에 흡연을 시작한 예도 7.7%로 나타났다. (표 5 참조)

14) 김경희, 희삼집, ibid.

15) 조상문, op. cit.

〈표 5〉 흡연 시작 시기

시작시기	No.	%
국민학교	5	5.5
중학교 1학년	2	2.2
중학교 2학년	5	5.5
중학교 3학년	19	20.9
고등학교 1학년	18	19.7
고등학교 2학년	32	35.2
고등학교 3학년	10	11.0
계	91	100.0

이 결과는 김 및 최<sup>16)</sup>의 고등학교 36.6%, 재수생 15.6%, 중학교 6.4%와 조<sup>17)</sup>의 중학교 3학년 34.7%, 고등학교 1학년 21.9%, 고등학교 2학년 13.5%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사이에 흡연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흡연학생중에서 처음 흡연을 같이 하였던 동반자의 분포를 보면 친구와 같이 60.4%, 혼자서가 31.9%, 선배와 5.5%, 형제 및 친척이 1.1%이었다. 한편 중학교 시절 흡연자에서는 친구와 88.6%,

혼자서 3.8%, 형제 및 친척이 3.8%이었고, 고등학교 시절 흡연자에서는 친구가 50.0%, 혼자서가 43.3%, 선배가 6.7%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최초 흡연을 같이 한 사람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시기에 걸쳐 친구와 같이 경험한 것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리는 가족, 친지보다도 친구와 함께 접하고 있는 시간이 매우 많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는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 및 가족의 흡연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나이가 많아질에 따라 부모보다는 자기동료의 영향을 더 받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이인 자립의 욕구<sup>18)</sup>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흡연동기가 사회의 인습, 문화적 배경, 경제적인 문제, 또 그 개인의 인격발달과 관련이 있는 만큼 흡연에 대한 문제는 각 개인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흡연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우선 그들을 이해하고 흡연을 유발시킬수 있는 상황을 배제하는 한편 인체에 대한 위협을 스스로 자각하여 끊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sup>19)</sup>

〈표 6〉 흡연시작시기에 따른 동반자 분포

시작시기 \ 동반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No.	%	No.	%	No.	%	No.	%
친구와	2	40.0	23	88.6	30	50.0	55	60.4
혼자서	2	40.0	1	3.8	26	43.3	29	31.9
선배와	1	20.0			4	6.7	5	5.5
형제 및 친척			1	3.8			1	1.1
기타			1	3.8			1	1.1
계	No. 5	% 5.5	No. 26	% 28.6	No. 60	% 100.0	No. 91	% 100.0

〈표 7〉 흡연시 기본상태

기본상태	No.	%
매우 좋다	56	61.5
그저그렇다	27	29.7
별로좋지않다	2	2.2
기타	6	6.6
계	91	100.0

(3) 흡연시의 기본상태

흡연하는 동안의 기본은 "매우 좋다"는 예가 61.5%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가 29.7%, "별로 좋지 않다"가 2.2%로 나타났다. (표 7 참조)

(4) 흡연에 대한 부모의 인지상태

표 9와 같이 흡연사실에 대해 부모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31.8%, 부모 중 어머니만 알고 있는 경우가 26.4%, 아버지만 알고 있는 경우가 1.1%로 나타나.

16) 김경희, 최삼섭, op. cit.

17) 조상문, op. cit.

18) 최신헌, op. cit.

19) 박순영, "흡연과 건강관리", 최신의학, 제20권, (1977), pp. 25~31.

부도가 자녀의 흡연문제에 대해 매우 무관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흡연에 대한 부모의 인지상태

인 지 상 태	No.	%
부도 모두 안다	29	31.8
부만 안다	1	1.1
모만 안다	24	26.4
부도 모두 모른다	36	39.6
기 타	1	1.1
계	91	100.0

(5) 흡연과 학교성적과의 관계

성적이 우수한 반 학생들 중 흡연을 하는 학생은 14.2%이었고, 보통반의 흡연학생은 36.7%로 나타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9 참조) 이는 조<sup>20)</sup>의 60점이하군에서는 71.4%, 80점이상군에서는 42.7%의 흡연경험을 가진 결과와 같은 것으로, 성적이 우수한 수록 흡연을 경험한 학생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흡연과 성적간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율이 낮다고 지적하고, 또 대학생 흡연자가 표현력, 지각, 연상등의 작용이 낮게 나타난다는 보고, 등과 함께 흡연은 기억력이 감소되고 학습능력이 저하된다는 학설<sup>21)</sup>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가치관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양심이나 도덕관의 형성에 있어서 혼돈과 갈등이 잦은 청소년 시기<sup>22)</sup>에 흡연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에는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표 9〉 성적에 따른 흡연상태

성적구분	흡연자		비흡연자		계	
	No.	%	No.	%	No.	%
우수반	25	14.2	151	85.8	176	100.0
보통반	66	36.7	114	63.3	180	100.0
계	91	25.6	265	74.4	356	100.0

$x^2=23.6$        $df=1$        $P<0.01$

(6) 한달용돈과 흡연과의 관계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한달 용돈에 따른 흡연자수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차이를 보여 흡연자중에서 5,000원이상의 용돈을 사용한 학생이 51.6%이었고, 비흡연자는 25.7%로 나타나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한달에 사용하는 용돈액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Lewin의 이론<sup>23)</sup>에 의하면 개인의 행동은 각 개인이 경험하는 환경속에서 어떤 특정한 자극치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학생들의 과도한 용돈은 흡연행동으로 이끌수 있는 하나의 자극치가 될 것이며, 심리적인 충동을 일으킬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청년기에는 주체성이 확고하지 못할 때 더욱 긴장이 심하고 불안에 직면 하게 되는데<sup>24)</sup> 이에 교육자와 학부모는 학생개인이 경험하는 환경을 분석하여 그 심리를 이해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이끌게 될 요인을 제거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표 10〉 한달 용돈에 따른 흡연 상태

습관	흡연자		비흡연자	
	No.	%	No.	%
용돈량				
3,000원 미만	9	9.9	95	35.8
3,000~4,999원	33	36.3	97	36.6
5,000~9,999원	28	30.8	58	21.9
10,000원 이상	19	20.8	10	3.8
기 타	2	2.2	5	1.9
계	91	100.0	265	100.0

$x^2=13.28$        $df=4$        $P<0.01$

3) 건강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 건강에 대한 인식

흡연학생중 흡연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표 12와 같이 "매우 나쁘다"고 답한 예가 80.2%, 흡연은 건강과 "무관하다"고 한 예가 17.6%,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한 예가 2.2%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의 대부분이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면서

20) 조상문, op. cit.

21) Clark, H. Hull, "The Influence of Tobacco smoking on Mental and Motor Efficiency", 150, (1924)

22) 김성태, 발달심리학, (서울, 법문사, 1977), p. 240.

23) 정양은, 심리학통론, (서울, 법문사, 1978), pp. 63~67, pp. 136~146.

24) 김성태, op. cit.

도 박상 금연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표 11〉 건강에 대한 인식

인식 상태	No.	%
매우 나쁘다	73	80.2
부관하다	16	17.6
도움된다	2	2.2
계	91	100.0

(2) 중·고생 및 젊은여성의 흡연에 대한 태도

한편 중·고등학교 학생과 젊은 여성의 흡연에 대한 태도는 흡연자 자신과는 달리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전체 흡연학생중 57.1%가 중·고생의 흡연에 대해 반대 의견을 하였고 젊은여성에 대해서는 83.5%가 반대의견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특히 젊은여성의 흡연에 대해 더 높은 반대율을 보이고 있어 오늘날에 있어서 여성 지위의 권리가 신장되고 남녀의 동등권이 주장된다고 해도<sup>25)</sup>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윤리관과 함께 흡연이 남성보다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표 12 참조)

〈표 12〉 중·고생 및 젊은 여성의 흡연에 대한 태도

태도	중·고생		젊은 여성	
	No.	%	No.	%
찬성한다	32	35.2	3	3.3
반대한다	52	57.1	76	83.5
관심없다	7	7.7	12	13.2
계	91	100.0	91	100.0

(3) 장래 흡연에 대한 태도

표 14와 같이 흡연학생의 장래 흡연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흡연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한 예가 62.6%이었고, 중단할 것이라고 답한 예가 37.4%이었다. 이는 앞서 표 12와 비교해 보아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고 느낀에는 80.2%로 높았으나, 중단할 것이라는 예는 37.4% 밖에 안되어, 금연의 실천단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제동이 아쉽다고 하겠다. 표 14의 흡연중단이유로써는 학업에 대한 지장때문에 중단하겠다고 답한 예가 52.9%로 가장 높았고, 건강상의 이유로

26.5%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는데, 여기서 학업에 대한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난것은 조사대상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학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겠다. 한편 흡연을 계속해야 할 이유로써는 흡연이 남자로서 사교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답한 예가 28.1%, 정서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예가 24.5%, 습관상 끊지 못하는 경우가 19.3%이었다. 이으로써 흡연 계속이유만을 보더라도 청소년의 흡연지도는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의 안목으로 적극적인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sup>26)</sup> (표 15 참조)

〈표 13〉 장래 흡연 태도

태도	No.	%
중단하겠다	34	62.6
계속하겠다	57	37.4
계	91	100.0

〈표 14〉 흡연 중단 이유

이유	No.	%
학업장애	18	52.9
건강상	9	26.5
경제면	3	8.8
도의면	1	3.0
기타	3	8.8
계	34	100.0

〈표 15〉 흡연 계속 이유

이유	No.	%
사교의 도구	16	28.1
정서적 안정	14	24.5
습관상	11	19.3
정신 집중	9	15.8
기타	7	12.3
계	57	100.0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부 남자고등학생의 흡연 실태를 조사본

25) 김영모, 한국사회학, (서울, 법문사, 1979), pp.120~129.

26) 김경호, 학교보건 및 실습, (서울, 수문사, 1978), pp.132~134.

석하드르씨 보다 바람직한 청소년 흡연에 대한 지도방안을 마련하고자 1979년 3월19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대구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3개의 남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56명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대상 학생 356명 중 흡연하는 학생은 91명으로 25.6%이었다.
2. 흡연학생들의 흡연시작시기는 고등학교 시절의 흡연이 65.9%, 중학교28.6%, 중학교 입학전인 5.5%로 나타났다.
3. 최초 흡연동반자 본포는 60.4%가 친구와 함께 되온 예가 가장 많았고 혼자서 흡연을 한 예가 31.9%였다.
4. 하루 일과 중 흡연시간은 대부분 하교후 집 이외의 장소에서 피우는 예가 31.6%로 가장 많았고 교내 생활 중 점심시간에 흡연을 하는 예가 21.6%, 등교전인 16.4%이었다.
5. 흡연시 기분상태는 "매우 좋다"는 예가 61.5%, "그저 그렇다"가 29.7%, "별로 좋지 않다"가 2.2%의 순이었다.
6.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부모의 인지상태는 부모 모두 모르고 있는 경우가 39.6%로 나타나 부모 모두 알고 있는 경우의 31.8%보다 높게 나타났다.
7. 성적이 우수한 반에서 흡연을하는 학생은 14.2%를 나타내었고, 보통반의 경우는 그 보다 높아 36.7%를 보임으로써 성적이 우수한 수록 흡연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 $\chi^2=23.6$  P<0.01)
8. 흡연학생과 비흡연학생간의 용돈량에는 큰 차이를 보며 흡연학생 중에서는 51.6%가 한달에 5,000원 이상의 용돈을 사용하였고, 비흡연학생은 25.7%만이 이에 해당된 액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9.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나쁘다"는 예가 80.2%, "무관하다"가 17.6%, "건강에 도움을 준다"가 2.2%순이었다.
10. 중·고생 및 젊은 여성의 흡연에 대해 흡연학생들의 태도는 중·고생의 흡연에 대해서는 57.1%가 반대, 35.2%가 찬성을 하였으며, 젊은 여성에 대해서는 83.5%가 반대, 3.3%가 찬성을 하였다.
11. 장래 흡연에 대한 태도는 흡연 학생 중 계속 피우겠다는 예가 62.6%, 중단하겠다는 예가 37.4%였다
12. 흡연을 중단할 이유로서는 흡연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예가 52.9%, 건강상의 이유가 26.5%, 경제적 이유가 8.8%이었다.

13. 흡연계속이유로서는 흡연이 남자로서 사회의 도움이 된다는 예가 28.1%, 정서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예가 24.5%, 습관상 끊지 못한다는 예가 1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청소년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아직도 다수의 학생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국민보건을 좌우할 청소년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모든 지역사회 주민은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보다 건전한 지역사회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특히 일선의 담임교사, 학생지도 교사는 학부모와 함께 학생지드에 민전을 기대야 할 것은 물론이고, 흡연에 대한 정확한 보건 지식을 습득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고응린, 박항배, 공중보건학, 서울, 신광출판사, 1978  
 김경희, 최삼섭, "일부 남자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에 관한 조사", 대한 보건 협회지, 제 5권, (1976. 6), pp.41—52.  
 김명호, 학교보건 및 실습, 서울, 수문사, 1978.  
 김상숙, "농촌 주민의 흡연 실태 조사", 최신의학, 제 19권, (1976), pp.214—219.  
 김성태, 발달 심리학, 서울, 법문사, 1977.  
 김영모, 한국 사회학, 서울, 법문사, 1979.  
 김영철, 이찬세,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문헌적그찰", 대한 결핵학회지, 제24권(1978) pp.119—130.  
 민병근, 이길홍, "한국 청소년의 흡연 양상", (중앙대 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 과학교실, 1976)  
 민병근외, "한국 청소년의 흡연 발생빈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1976)  
 박순영, "흡연과 건강관리", 최신의학, 제20권, (1977), pp.25—31.  
 박형규,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사회 정책적 고려", 대한의학협회지, 제10권, (1967), pp.546—548.  
 신만권, "Nicotine의 약리", 대한의학협회지, 제10권 (1967.), pp.564—570.  
 임태빈, "고등학교생의 흡연 실태 조사 및 그 선도 방안 에 관한 연구", (역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76)  
 이장백외, "약년(若年)흡연자의 환기역학", 대한 의학

협회지, 제21권, (1978), p.321.  
 정양은, 심리학 논문, 서울, 범문사, 1978.  
 조동규외, "과격 한 흡연이 폐기능에 미치는 영향", 대한의학협회지, 제20권, (1977), p.131.

조상훈, "한국 고등학생들의 흡연에 관한 조사 연구", 공중보건잡지, 제10권, (1973. 1) pp.73—79.  
 최신헌, "금연의학", 대한의학협회지, 제10권, (1967) pp.577—580.

—ABSTRACT—

**A STUDY ON SMOKING STATUS  
 OF SENIOR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Kyung-Im Chung  
 Armed Forces Nursing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moking status of highschool students in Taegu area so as to provide some informations to establish a desirable way of health education and guidance for student smoker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356 male highschool students in Taegu City were questionaired from the date of 19th to 31st of March, 1979. The results are summarized into 13 items as follows:

1. Number of smoking students:  
 91 (25.6%) out of 356 students
2. The school-age in which to begin smking:  
 65.9% 'not until senior highschool'  
 28.6% 'during junior highschool'  
 5.5% 'before junior highschool'
3. The first smoking mates:  
 60.4% 'with friends'  
 31.9% 'alone'  
 5.5% 'with senior'
4. Smoking time:  
 31.6% after school at a certain place other than home  
 21.6% lunchtime at school  
 16.4% before going to school
5. Feelings after smoking:  
 61.5% 'very good'  
 29.7% 'nothing particular'  
 2.2% 'bad'
6. Parents, awareness of their smoking:  
 39.6% 'neither aware'  
 26.4% 'mother only'  
 1.1% 'Father only'  
 31.8% 'Both aware'
7. Relation between smoking and schoolwork performance:

- 'The more the worse'  
 (36.7% in below-average group  
 14.2% in superior group)
8. Relation between smoking and pocket-money:  
 (Number of students spending more than 5,000w in a month)  
 51.6% among smoking group  
 25.7% among non-smokers
  9. Opinions on harms from smoking:  
 80.2% 'very harmful'  
 17.6% 'neither good nor bad'  
 2.2% 'good for health'
  10. Opinions on the smoking of students or yough female:  
 57.1% 'against'  
 35.2% 'for' the student smoking  
 83.5% 'against'  
 3.3% 'for' the young famale smokers
  11. Future determinations on smoking:  
 62.6% 'will continue'  
 37.4% 'will quit'
  12. Reasons for stopping:  
 52.9% 'bad for study'  
 26.5% 'bad for health'  
 8.8% 'unable to afford'
  13. Reasons for continuing:  
 28.1% 'for social need'  
 24.5% 'for emotional effect'  
 19.3% 'from habituation'

As the results indicate, smoking is prevalent among highschool students without their having any notion of the harms which may arise when they smoke while quite young. The community, therefore, should take great care in providing them with a more appropriate condition for their guidance. Not only teacher but also parents should endeavor to lead them to a better school life, and to help their health with more thorough knowlege on health, especially on smoking habits.